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초심상담자의 진로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

유 소 영

강화 Wee센터 / 교사

연 규 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부교수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을 매개하여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상담 경력 3년 이내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204명의 초심상담자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한 이중매개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와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사회비교를 많이 하고 진로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초심상담자 어려움이 높아지고 진로불안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사회비교경향성을 높이고, 높은 사회비교경향성은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진로불안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진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초심상담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 진로불안

* 본 연구는 유소영(2017)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초심상담자의 진로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 336
Tel : 02-705-8327, E-mail : kjyon@sogang.ac.kr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진행한 상담자 실태조사에 근거한 김종진(2017)의 발표에 따르면 상담자의 70% 이상이 20-30대이고, 많은 수의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들이 30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수련을 시작했을 때 학사 이상, 즉 20대 후반에 상담 수련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도 10년 내에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중단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하나의 진로를 선택할 때에는 수많은 개인적, 환경적 요소들과 더불어 사회적 제약들로 반복적인 수정과 타협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손은령, 2004)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상담자라는 진로를 이탈하는 것은 개인이 진로를 지속하는 데에 부적응을 겪고, 이를 해소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상담자 진로를 어렵게 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지연(2017)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한 1400명 중 350명이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였고, 329명이 “자격조건,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임금체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설문이 단순히 초심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원이 불안정한 직업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정경빈, 조성호(2009)의 질적연구에서는 상담자로서의 불확실한 미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2009)의 연구에서도 상담전공 석사생들이 상담자 처우의 열악함이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할 만큼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초심상담자들은 실제로 불안정한 직업 경험을 하고 있거나, 자

신보다 경력이 많은 상담자들이 직업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상담 실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확실성도 상담자들에게 진로 고민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상담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석사생들의 경우 상담에 정답이 없다는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것을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황채운 등, 2009). 고윤희, 박성현(2014)의 질적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이론적, 이상적으로 가져야하는 모습을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담장면에 적용하는 데에서 막막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상담 수련 과정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피드백들을 자신의 자질부족으로 귀인하고 상담자로서의 적합성을 고민하게 만든다고 하였다(고윤희, 박성현, 2014). 또한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2009)의 질적연구에 의하면 초심상담자들과 상담전문가 모두 자신이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워하고 더 나아가 초심상담자들은 자신이 상담자라는 직업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상담자로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상담 실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초심상담자들의 진로 고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초심상담자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역량을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개념화 했는데, 실제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발달 영역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 진로 미결정이나 지각된 진로장벽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민위, 강지현, 2015; 김경옥, 2009; 이아라, 이주영, 2015). 따라서 초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Dugas, Buhr와 Ladouceur(2004)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불확실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의 부정적 반응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워한다(Dugas, Gosselin, & Ladouceur, 2001). 이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기 어려워함으로써 모든 모호한 정보들을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고(Hedayati, Dugas, Buhr, & Francis, 2003), 모호한 정보가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걱정하는 특징을 보인다(Dugas et al, 200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상담자에게 특히 필요한 역량이라는 점이 여러 문헌들에서 강조되고 있다. Corey(2004)는 상담 입문용 교과서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버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Kottler와 Brown(1996)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들과 불확실한 상황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Jennings, Goh, Skovholt, Hansen과 Banerjee-Stevens(2003)이 상담자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요인들 중 하나로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인내하는 능력을 꼽았으며, 유사하게 이장호(1995)도 내담자가 보이는 사고의 불명료성, 모호한 의지 상태, 감정의 혼란에 대한 인내와 수용

을 유능한 상담자의 특성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작 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경우 어떻게 상담자에게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진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 현재까지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들의 상담효과나 소진, 치료동맹 등 상담현장에 국한되어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홍수현, 최해림, 2001; Efstation, Patton, & Kardash, 1990). 몇몇 질적 연구를 통해서 초심상담자가 상담실제의 모호성과 상담자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고윤희, 박성현, 2014; 김지연 등, 2009; 황재운 등, 2009), 이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서 초심상담자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명확한 원인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으로 특징지어지는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관적 상태로 정의했는데(주명진, 김정남, 2011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진로 불안은 진로와 관련된 불안, 즉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 등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관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 불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진로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안과 진로 미결정 등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진로 불안과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김현숙(2014)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 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람은 역시

능적 진로사고를 더 많이 하여 정보탐색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고 진로문제해결에 비관적인 양상을 보여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진다(석효열, 2016). 위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불안을 높일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자로 진로를 선택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진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심상담자들이 직업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요인들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초심상담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을 통해 진로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초심상담자들의 진로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는 잦은 사회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고 이는 그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별히 한국의 상담자 직업시장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비교 이론은 Festinger(1954)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과 비교함으

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각하고자 하는데, 이는 관계중심적인 자기개념을 지닌 동양 문화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Kanagwa, Cress, & Markus, 2001; 유기은, 2016에서 재인용). 높은 사회비교경향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미디어에 나오는 대상들의 몸매와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불안을 높이고(Dittmar & Howard, 2004), 개인의 우울수준을 높이며(최윤희, 200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는(김나래, 이기학, 2012) 것이 밝혀졌다.

Meares와 Freeston(2008)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서해란, 2014; Gibbons & Buunk, 1999).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수련기간 동안 이론의 습득과 적용을 반복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초심상담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정경빈, 조성호, 2009; 차영은, 2012; 황채운 등, 2009)에서 참가자들이 상담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수련 중에 수입이 없으며 전문가의 지위가 보장이 안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은 상담자의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들로 하여금 다른 진로를 선택한 또래들과 자신의 위치를 더 비교하게 만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지연 등(2009)의 질적 연구에서 ‘상담자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금전적으로 부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는 결과와 함께 ‘주위 친구들의 연봉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심적으로 불편하다는 결과는 상담자들이 자신이 현

재 혹은 앞으로 가지게 될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초심상담자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수록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른 진로를 선택한 또래들과 자신의 위치를 더 비교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비교경향성이 불안이나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해란(2014)은 타인과의 지나친 비교는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걱정 수준을 높인다고 밝혔고, Gibbons와 Buunk(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불안을 유발한다고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을 진로의 맥락에서 연구한 김나래와 이기학(2012)은 사회비교를 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연구 결과(Fuqua, Seaworth, & Newman, 1987)와 종합해 보면, 지나친 사회비교는 결과적으로 진로에 확신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기은(2016)은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와 현재 자신의 진로 진행상황의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하여 진로 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초심상담자의 경우에도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불안을 더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진로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는 상담 진행에 어

려움을 느껴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념화 하고자 했는데, 김길문과 정남운(2004)은 상담자의 어려움을 ‘상담 회기 중에서 내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해 상담자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김미지(2005)는 특별히 초심상담자에 초점을 두고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힘들고 괴로운 경험’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 개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수준이 상담실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견디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여 김미지(2005)의 정의를 따라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Levitt와 Jacques(2005)에 따르면, 상담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적용시켜야 하는 특성 때문에 교과서 기반의 학습을 해왔던 초심상담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며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는 상담 과정도 상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더불어 상담에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각 이론마다 인간과 정신병리에 대한 관점이 다르며 그에 따라 치료목표와 방법도 다양하다. 이처럼 상담과정은 불확실성의 연속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완벽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불확실감을 매우려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박현정, 박경, 2019; 이연실,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상담자들은 상담을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Wittenberg와 Norcross(2001)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상담자들은 완벽주의를 나타냈고, 이는 곧 상담

수행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사하게 이장호(1995)도 모호한 상황을 참지 못하는 상담자는 지배성이 높고 자제력이 없거나 공격성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Friedlander와 Ward(1984)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설부른 위로나 부정확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조유경(2011)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초심상담자일수록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확실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회피해버림으로써 상담자 자신의 역전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결과와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상담자의 경우 상담에 있어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하여 상담 효과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상담장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 여겨진다. 상담자 개인이 느끼는 상담에서의 어려움은 자신의 상담 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보고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지각이 반영된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서 발달한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 따르면, 특정 과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 실행 및 선택을 결정하며 개인의 수행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봉환 등, 2010). 초심상담자들과 전문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지연 등(2009)의 질적 연구에서 초심상담자들은 상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을 상담자 수련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더불어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고윤희와 박성현(2014)의 질적 연구에서는 전문성 발달과정에 있어 참가자들이 상담자의 자질적 측면에서 부족감을 느끼거나

무능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상담자로서의 적합성을 고민하며 진로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효능감도 같이 낮아지고(Lent, Brown, & Heckett, 2002), 결과적으로 상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떨어진 초심상담자들은 상담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다(Levitt & Jacques,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초심상담자의 상담 내 어려움을 증가시켜 진로에 대한 불안을 높일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상담하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는 자신의 상담능력 수준을 확인하고자 다른 상담자들과 비교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초심상담자의 상담 내 어려움을 증가시켜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불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표준화된 기준을 통한 상담 수행 능력의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Hanna & Smith, 1998) 주장되어 왔지만 상담 수행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은 복잡하고 그 적용 또한 애매하다(Hensley, Smith, & Thompson, 2003). 상담의 실제에서는 개인의 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초심상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상담을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상담자들과 비교를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황채운 등, 2009)에서는 ‘상담장면에 정답이 없어 막막함’이 상담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Thériault과 Gazzola(2010)에 따르면 상담자들은 발달단계 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담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불확실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 하는데(Meares & Freeston, 2008) 전술한 상담분야의 특성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초심상담자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높은 사회비교경향성은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초심상담자의 실제 상담수행이 저하되거나 스스로의 상담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정희(2006)는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 자신을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과하게 기울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초점적 주의를 오히려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최명심, 손정락, 1992)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초심상담자는 상담 내에서 자신의 상담수행에만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내담자에게 몰입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초심상담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정경빈, 조성호, 2009)를 보면, ‘동료와 비교가 되는 것’과 ‘미흡해 보일 것 같아 불안함’이 상담 수련과정 내의 스트레스로 보고되었으며, 상담자 전문성 발달을 위한 연구(고윤희, 박성현, 2014)에서는 상담자들이 잘하는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느끼고 무능감을 경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높은 사회비교경향성을 가진 초심상담자는 다른 상담자와의 지나친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높은 사회비교경향성은 개인의 능력과 유능감을 불안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안녕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Lyubomirsky, Tucker, & Kasri, 2001) 높은 사회비교경향성을 가진 초심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고윤희와 박성현(2014)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다른 상담자와의 비교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무능감을 경험했던 상담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합성을 고민하며 불안과 혼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초심상담자의 사회비교경향성은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초심상담자들이 자신의 수행을 확인하고자 다른 상담자들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잦은 사회비교는 오히려 초심상담자로 하여금 상담수행에 어려움을 더 느끼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불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을 통하여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심상담자들이 수련 과정 중에 가지는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수련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상담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운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윤진(2010), 황채운 등(2009)의 연구에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은 해야할 것 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갈 일이 많고, 비싼 학비 및 기타

사적인 지출(예, 슈퍼비전 비용)이 필요한 점을 수련 중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김지연 등(2009)의 연구에서는 ‘수련기간 동안 수입이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 위 연구결과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초심상담자들에게 있어서 전문상담자로서의 진로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 추측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보다 진로 선택 후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감이 진로불안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상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수련과정에 있는 초심상담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담 분야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에게 진로불안을 야기하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이 숙련된 상담자로 나아가고 진로를 지속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

를 사회비교경향성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의 관계를 초심상담자 어려움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를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첫 사례를 기준으로 상담 경력 이 3년 이하인 상담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전국의 대학원에 상담심리 전공으로 재학 중이며 실습을 한 학기 이상 3년 이하로 한 학생들과 대학부설 상담소, 공공기관 혹은 사설 상담소 등에서 수련중인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다수의 상담자들이 가입되어있는 학회의 홍보게시판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인을 통한 눈덩이 표집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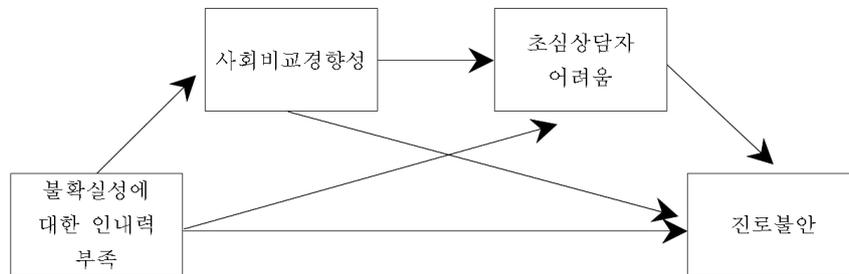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문 응답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 답례로 온라인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총 20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경력을 초과하는 자료 1개를 제외하고 총 20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204명의 성별은 여자가 191명(93.6%), 남자가 13명(6.4%)이었고 평균연령은 31.4세($SD=6.41$)였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05명(51.5%), 30대가 77명(37.7%), 40대가 17명(8.3%), 50대가 5명(2.5%)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교 졸업부터 박사 재학까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이 2명(1%), 석사 재학/수료가 100명(49.0%), 석사 졸업이 97명(47.5%), 박사 재학이 5명(2.5%)이었다. ‘진로를 선택하고 수련하는데에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부담이 아니라고 응답한 참가자가 2명(1%)이었고, 별로 부담이 아니라고 응답한 참가자가 9명(4.4%), 조금 부담된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38명(18.6%),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155명(76.0%)였다.

측정도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Short Form: IUS-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는 김순희(2010)의 단축형(IUS-12)을 사용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는 Freeston, Rhéaume, Letarte, Dugas와 Ladouceur(1994)에 의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문항 간 상관관이 매우 높고 기존에 제안되었던 4요인 혹은 5요인 구조(Freeston et al., 1994)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Carleton, Norton과

Asmundson(2007)이 2요인 구조의 단축형으로 개발 및 타당화 하였고, 이를 김순희(2010)가 번안하였다. IUS-12는 총 12문항으로 예기불안(perspective anxiety)을 의미하는 7개의 문항들(예: 뜻밖의 일을 피하려면 항상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과 억제불안(inhibitory anxiety)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들(예: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4점 Likert식(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못 견디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에서 예기불안의 신뢰도는 .78, 억제불안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진로불안

진로불안은 기존에 조규관(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유기은(2016)이 변형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취업불안 척도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 유발상황, 취업불안 유발요인)의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기은(2016)은 불안한 상태 그 자체만 측정하고자 하여 취업불안상태를 나타내는 10문항만 ‘취업’이라는 단어를 ‘진로’로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를 생각할 때에 겪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안만을 측정하고자 진로불안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초심상담자라는 특정 대상 집단이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생각할 때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로서의’라는 표현을 모든 문항에 추가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상담자로서의 나의 진로만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등이 있다. 전체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규관(2008)의 연구에서 취업불안상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94였고, 유기은(2016)의 연구에서 진로불안상태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불안상태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 척도(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

사회비교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bons와 Bunnk(1999)가 개발하고, 최윤희(2003)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존에 Festinger(1954)가 말했던 세 가지 사회비교동기인 자기평가동기, 자기고양동기, 그리고 자기향상동기 중 자기평가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INCOM은 총 11문항으로, 능력(ability)과 의견(opinion)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ability)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총 6문항(예: 내가 일을 잘 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한다)이고, 의견(opinion)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느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총 5문항(예: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고 한다)이다. 2개의 역채점 문항이 존재하며, 전체 문항은 5점 Likert식(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에서 능력의 신뢰도는 .81, 의견의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초보상담자 어려움 척도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은 김미지(200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상담경력 3년 이내인 초심상담자들을 대상

으로 제작되었으며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은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례개념화 및 개입 13문항(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과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 13문항(상담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 상담자 특성 12문항(예: 상담자의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렵다), 내담자 이해와 수용 9문항(예: 내담자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담자의 비협조적 태도 11문항(예: 내담자가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다)이 존재한다. 내담자의 비협조적 태도의 경우 상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8점 Likert 척도(0=경험한 적 없다, 1=전혀 어렵지 않았다, 4=보통이었다, 7=매우 어려웠다)로 구성되어 있다. 김미지(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개념화 및 개입은 .88,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은 .90, 상담자 특성은 .86, 내담자 이해와 수용은 .91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은 단일문항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수련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Likert 척도(1=전혀 부담이 아니다, 2=별로 부담이 아니다, 3=조금 부담이다, 4=매우 부담이다)로 다른 인구학적 배경 질문과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아닌 개인이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SPSS Macro Process를 통해 각 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지원과 이기학(2014)에 따르면 SPSS Macro Process의 다중매개분석은 기존의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했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비해 간단하고, 하나 이상의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직접 및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PSS Macro Process의 모델6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이 미치는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초심상담자들이 수련 중에 가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정규분포를 가정하기에 적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효과의 유의도 확인에 있어 SPSS Macro Proces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

표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과 진로불안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204)

	1	2	3	4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2 사회비교경향성	.438***	-		
3 초심상담자 어려움	.438***	.424***	-	
4 진로불안	.465***	.372***	.462***	-
평균	2.60	3.36	3.73	2.60
표준편차	0.48	0.55	1.02	0.92
왜도	0.05	-0.07	-0.17	0.25
첨도	0.59	-0.18	-0.03	-0.28

주. *** $p < .001$.

편차 및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 진로불안은 각각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 진로불안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438, p<.001$; $r=.438, p<.001$; $r=.465, p<.001$), 사회비교경향성도 초심상담자 어려움, 진로불안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24, p<.001$; $r=.372, p<.001$). 초심상담자 어려움 역시 진로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462, p<.001$). 모든 변인들 간에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나왔으나, 상관계수가 모두 .5 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었다(Kline, 2005).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중매개효과 분석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가 제공하는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그 중 Hayes(2012)가 제안한 모델6을 적용하여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각 경로의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모형의 직접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 그리고 그 유의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불안의 관계를 설정한 모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총 효과는 .84($p<.001$)로 나타났으며,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55, p<.001$). 통제변인으로 고려한 경제적 부담감의 경우, 총 효과 모형에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B=.41, p<.001, [.225, .588]$)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매개변인인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 그리고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B=.11, B=.56, B=.13$). 매개효과들은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편향 수정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회비교경향성의 경우 진로불안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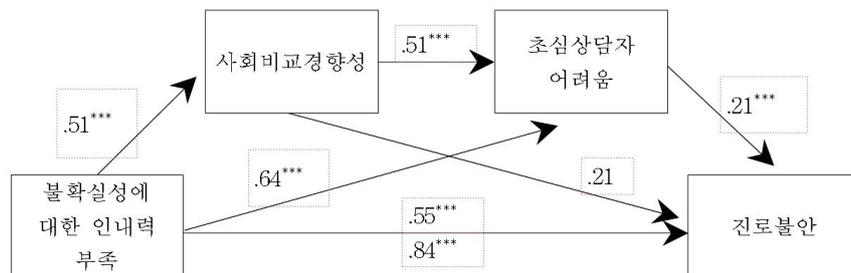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결과

표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과 진로불안 간의 경로계수

경로	B(SE)	t	95% 신뢰구간 [LL, UL]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사회비교경향성	.51(.08)	6.77***	[.364, .66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초심상담자어려움	.64(.15)	4.40***	[.355, .931]
사회비교경향성 → 초심상담자 어려움	.51(.12)	4.18***	[.270, .754]
사회비교경향성 → 진로불안	.21(.11)	1.95	[-.002, .429]
초심상담자어려움 → 진로불안	.21(.06)	3.45***	[.089, .32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진로불안	.55(.13)	4.17***	[.287, .803]

주. *** $p < .001$.

주. LL=Lower Limits of a Confidence interval, UL=Upper Limits of a Confidence interval.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총 효과,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 및 직접효과	B(SE)	t	95%신뢰구간 [LL, UL]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진로불안의 총효과	.84(.12)	7.15***	[.611, 1.07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진로불안의 직접효과	.55(.13)	4.17***	[.287, .803]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 UL]
총 간접효과	.30	.08	[.163, .47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사회비교경향성→진로불안	.11	.07	[.001, .25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초심상담자 어려움→진로불안	.13	.05	[.049, .26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사회비교경향성→초심상담자 어려움→진로불안	.06	.03	[.018, .126]

주. *** $p < .001$.

주. LL=Lower Limits of a Confidence interval, UL=Upper Limits of a Confidence interval.

는 영향($B=.21$)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Hayes (2009)에 의하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데에 각각의 경로들의 유의미성이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의 매개효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경제적 부담감을 통제하였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이 부족한 초심상담자는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초심상담자 어려움이 증가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진로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불안 간의 관계가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후 직면하는 직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맥락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분석과정에서 통제하였다.

첫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과의 관계를 사회비교경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초심상담자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타인과의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담자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을 높인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김나래, 이기학, 2012; Butzer & Kuiper, 2006)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미결정(석효열, 2016) 및 불안(신수진, 홍혜영, 2014)을 높인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을 통하여 걱정수준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서해란, 2014)를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질적 연구들(고윤희, 박성현, 2014; 김지연 등, 2009; 정경빈, 조성호, 2009)에서 상담 직무 현장의 열악함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던 것

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들의 경우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대하여 불확실한 느낌을 더 크게 느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김지연 등(2009)의 연구에서 ‘수련과정 동안 수입이 없이 지내는 것’과 ‘주위 친구들은 연봉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초심상담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초심상담자들은 결국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혹은 친구들과 더 많이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잦은 사회비교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걱정수준을 높이고(서해란, 2014) 자존감을 떨어트리며(김나래, 이기학, 2012) 불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Gibbons & Buunk, 1999)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극대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다룰 때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초심상담자들의 경우 안정된 직업이나 높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혹은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적 위치와 금전적 보상 등에 불만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진로 선택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초심상담자 어려움을 통하여 진로 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에 상담의 모호한 특성 때문에 상담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들(이장호, 1995; Corey,

2004)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상담에서 지각되는 어려움들은 초심상담자들에게 무능감을 가져다 주어 적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질적 연구(고윤희, 박성현, 2014)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완벽주의와 상관성이 높고(Buhr & Dugas, 200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시키고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박현정, 박경, 2019; 이연실, 2020)을 초심상담자에게 적용해 보면,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초심상담자일수록 상담 회기 내에서 맞는 반응과 정확한 이론적 적용을 과하게 염두에 두고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담에서 강조하는 ‘지금-여기(Here and Now)’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담관계 및 상담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Wittenberg와 Norcross(2001)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상담자들이 완벽주의로 인해 상담을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수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담관계가 저해되고 상담의 효과가 떨어지면 이는 곧 내담자에게 고스란히 드러나, 내담자가 저항을 한다거나 조기종결을 요구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심상담자는 상담 내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게 된다. 차영은(2012)은 초심상담자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담의 성패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자 하여 상담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초심상담자에게 자신의 적성을 고민하게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즉 상담실체가 가지는 불확

실한 특성을 다룰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에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을 일으키고(Gibbons & Buunk, 1999)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아지며(하정희, 2006) 높은 자기초점적 주의는 수행을 방해한다는(최명심, 손정락, 1992)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고윤희, 박성현, 2014)에서 보고되었던, 잘하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더 크게 지각되고 상담자로서의 무능감을 느끼며 진로 적합성을 고민하게 된다는 내용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많은 상담자들이 자신의 상담 역량을 측정해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데(정경빈, 조성호, 2009)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초심상담자들은 주변 동료나 수퍼바이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하고자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심상담자들이 하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얻거나, 상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할 수 있다면 사회비교경향성은 초심상담자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진로불안도 낮추어 초심상담자의 상담수행 및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턴 상담원들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에서 보고된 ‘수퍼비전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다’, ‘수퍼바이저가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만 지적하였다’, ‘수퍼바이저가 공격적으로 말하였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초심상담자들은 대개 수퍼비전에서 자신의 부족함 위주로 지적 받기 때문에, 상향비교를 통한 좌절감 및 불쾌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상향비교를 통한 좌절감과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초심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경험은 초심상담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해 온 진로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진로를 재고하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상담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초심상담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진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현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에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와 달리 진로를 선택하고 훈련과정에 있는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상담자의 진로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김봉환(2001)에 따르면,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상담자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상담 관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상담 전공자 자신의 진로 및 직업고민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진로 선택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했으나, 상담

자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상담 효과와 관련된 연구(홍수현, 최해림, 2001; 황인호, 2005)에 치우쳐져 있다. 더불어 초심상담자와 전문상담자의 수행 및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들(권혜경, 이희경, 2013;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은 일부 진행되었지만, 초심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초심상담자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진아(2015)는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 추론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초심상담자가 아니더라도 진로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옥장흠, 2009; 이상미, 1995) 다소 존재하지만, 다른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둘째는, 특히 상담자는 진로상담에 대해 공부하고 진로상담을 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과 지속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심상담자들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상담과 상담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진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상담자 처우의 열악함, 수련기회의 부족(조윤진 등, 2010), 혹은 실제 상담의 어려움(황채운 등, 2009)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초심상담자들로 하여금 향후 진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들이 진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들이 그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 줄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초심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진로불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어떤 변인들이 불안감을 일으키는지, 또 그들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전문 상담자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 초심상담자 어려움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상담이란 이론과 실제가 매우 상이하고, 내담자의 다양성 및 이론적 접근의 다양성 때문에 정해진 정답이 없으며,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등 여러 측면에서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Levitt & Jacques, 2005). 그러므로 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Corey, 2004; Kottler & Brown, 1996), 실제로 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상담자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한 국내 연구들은 많지 않다. 더불어 막 상담에 입문하여 혼란을 겪고 있을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비교경향성, 상담자 자신이 지각하는 상담 회기 내 어려움과 진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면서(Levitt & Jacques, 2005; Light, 1979), 초심상담자들이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상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교육방법들에는 초심상담자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의 핵심이 되는 상담방법을 보여주는 것, 상담자 발달 단계가 비슷한 동료들끼리 소규모 그룹활동을 통해 성찰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상담의 진행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진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춰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상담자를 비롯하여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진로영역의 불확실성에 있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경(2003)에 따르면 상담 적용분야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담이라는 분야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다. 상담 및 상담사와 관련된 법 제정 및 예산 지원, 국가 자격증의 발행 등을 통한 상담의 전문직화는 무자격자의 상담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의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다(김영근 등, 2012). 이러한 변화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상담의 전문직화는 상담자 일자리의 창출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연결 될 것이며 진로 영역에서 초심상담자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상담 내에서 초심상담자들이 겪는 불확실성, 혹은 상담 내 어려움 감소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정경빈과 조성호(2009)의 초심상담자 대상 질적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의 미흡하고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을 수련과정의 스트

레스 중 하나로 뽑았다. 또한 조운진 등(2010)의 상담전공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석사 교육과정에서 수퍼비전 및 실습 경험이 제공되지 않는 것과, 향후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부분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황채운 등 (2009)은 국내 많은 상담 석사생들이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상담자 진로 및 훈련과정 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상담 수련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초심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불안’에 사용된 척도가, 진로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척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진로불안’척도는 본래 ‘취업불안’척도를 변형시킨 것이다. 조규판(2008)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불안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그들에게는 취업이라는 특정 목표가 존재한다. 하지만 ‘진로(career)’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하는 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활동 모두를 일컫는다. 그렇기에 취업불안이 의미하는 것보다 진로불안이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고, 원척도가 개발될 때에 포착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진로불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수 있다. 기존에 Jones(1989)가 제시한 진로결정프로파일(Career Decision Profile; CDP) 척도가 진로 미결정자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진로를 선택했

음에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으나, 척도 구성은 진로 결정성에 대한 2문항과 편안성에 대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고도 불안한 사람들의 상태를 포착해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한 상태에서도 불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경제적 부담감’을 연구자가 제작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중 하나로 ‘경제적 수준’을 5점 Likert 척도(1=상, 3=중, 5=하)로 수집하거나(김예은, 연구진, 2018) 실제 월 수입을 조사하였고(김가원, 김명언, 2007), 진로탐색장애검사(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김은영, 2002)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경제적 수준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김영경, 2008).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진로 선택 후에 개인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감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문항을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진로 준비 과정이 길거나 합격 여부 등이 불분명한 진로(예, 고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이 진로불안을 잘 견뎌내고 상담자로서의 진

로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빈과 조성호(2009)의 질적연구에 따르면, 상담에 대한 만족감, 자기분석이나 수퍼비전과 같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사회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초심상담자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와 상담의 모호함 및 다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자기분석 경험의 유무 혹은 상담과정에서 개인이 얻는 보람, 자부심 혹은 소명 의식 등이 실제적으로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로불안을 크게 느끼던 초심상담자들이 어떤 이유로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중단하고자 결심하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초심상담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혹은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만, 대체로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는 초심상담자들이 수련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김미지, 2005; 차영은, 2012)는 있지만, 어떤 변인이 그들로 하여금 진로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그만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질적연구 결과(박신영, 2017)에서는 초심상담자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으로 ‘상담 훈련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들’, ‘경제적 어려움’과 ‘상담자 진로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자로서의 역량 부족’, ‘상담자 훈련 과정에서의 비용문제’ 그리고 ‘상담자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일

부 반영하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더 다양한 요인들이 초심상담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진로를 변경하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박신영, 2017)는 질적연구로 소수의 경험을 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인들이 결정적으로 초심상담자들로 하여금 진로를 변경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양적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상담자들이 현재 진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예비 상담 지망생들에게도 적절한 진로지도도를 통해 그들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민위, 강지현 (201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남녀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6(2), 21-40.
- 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 김가원, 김명언 (2007).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대학교 1 학년생이 경험하는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어려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394-395.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길문, 정남운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나래,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김미지 (2005).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문항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2001). 상담전공자의 진로 및 직업개발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2(2), 263-277.
- 김봉환, 이계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순희 (2010). 부정적 평가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김예은, 연규진. (2018). 20~ 30 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99-523.
-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 김종진 (2017). 근로자로서의 상담자: 공공 정책적 시각.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및 사례심포지엄. 3월 18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 미간행.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상담일반: 초심 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김현숙 (2014).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449-467.
- 박신영 (2017).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진로단절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박 경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1(2), 75-91.
- 서해란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 경향성, 부정적인 문제해결 지향과 걱정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효열 (2016). 대학생의 부모진로기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 정서인

- 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95-116.
-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상담자의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 옥장흠 (2009).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연구, 26(2), 175-200.
- 유기은 (2016).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아람, 정남운 (2011). 상담자 소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31-256.
- 이상미 (1995). 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개인의 성격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학회, 25(4), 790-806.
- 이아라, 이주영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따른 진로결정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6(1), 221-241
- 이연실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229-252.
-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지연 (2017). 근로자로서의 상담심리사: 근로상담자의 시각.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3월 18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 미간행.
- 이지원, 이기학 (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 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55-87.
- 정경빈, 조성호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0(2), 45-60.
- 조규관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 연구, 46(2), 53-75.
- 조유경 (2011). 초심상담자의 사적자의식, 자기개념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역전이 활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운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운진 (2010). 상담 석사 과정에 대한 석사생들의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 인간이해, 31(2), 103-122.
-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차영은 (2012). 초심상담자 어려움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심, 손정락 (1992). HR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발표불안과 자기초점적 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49-263.
- 최윤경 (2003). 한국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 업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사회비교 경향성, 비합리적 신념과 성취목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4), 785-805.

- 홍수현, 최해림 (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9.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황진아 (2015). 상담 전공 대학원생의 자기성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 상담일반: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Hall, Inc.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s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67-176.
- Carleton, R. N., Norton, M. P. J., & Asmundson, G. J. (2007). Fearing the unknown: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1), 105-117.
- Corey, G. (2004).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7th ed.). Belmont, CA: Wadsworth.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ttmar, H., & Howard, S. (2004).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as moderators of media models' impact on women's body-focused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6), 768-791.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etiology and maintenance.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 143-16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Dugas, M. J., Gosselin, P., & Ladouceur, R. (2001).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worry: Investigating specificity in a non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5), 551-558.
- Efstation, J. F., Patton, M. J., & Kardash, C. M. (1990). Measuring the working alliance in counselor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3), 322-329.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eeston, M. H., Rhéaume, J., Letarte, H., Dugas,

-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 Friedlander, M. L., & Ward, L. G.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ory style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41-557.
-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2), 175-186.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Hanna, M. A., & Smith, J. (1998). Using rubrics for documentation of clinical work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7(4), 269-278.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edayati, M., Dugas, M. J., Buhr, K., & Francis, K. (2003, Novemb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and unambiguous information*. In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ur Therapy, Boston, MA.
- Hensley, L. G., Smith, S. L., & Thompson, R. W. (2003). Assessing competencies of counselors in training: Complexities in evaluat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2(3), 219-230.
- Jennings, L., Goh, M., Skovholt, T. M., Hanson, M., & Banerjee-Stevens, D. (2003). Multipl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expert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9-72.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ottler, J. A., & Brown, R. W. (1996). *Introduction to therapeutic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255-311). San Francisco, CA: John Wiley & Sons.
- Levitt, D. H., & Jacques, J. D. (2005). Promoting tolerance for ambiguity in counselor training programs.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44(1), 46-54.
- Light Jr, D. (1979). Uncertainty and control in professional train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4) 310-322.
- Lyubomirsky, S., Tucker, K. L., & Kasri, F.

- (2001). Responses to hedonically conflicting social comparisons: Comparing happy and unhappy peop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5), 511-535.
- Meares, K., & Freeston, M. (2008). *Overcoming worry: A self-help guide using cognitive behavioral techniques*. London: Constable & Robinson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hériault, A., & Gazzola, N. (2010). Therapist feelings of incompetence and suboptimal processe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0*(4), 233-243.
- Wittenberg, K. J., & Norcross, J. C. (2001). Practitioner perfectionism: Relationship to ambiguity tolerance and work satisfa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12), 1543-1550.

원 고 접 수 일 : 2020. 08.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20. 11. 01

**The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Novice Counselors' Career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Novice Counselors' Difficulty**

So Young You

Ganghwa Wee Center / Teacher

Kyu Jin Yon

So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career anxiety, and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novice counselors' difficulty experienced in counseling.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counselors who had fewer than three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 sample of 204 counselor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ouble medi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both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novice counselors' difficulty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anxiety.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novice counselors' difficulty had a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anxiety.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to decrease novice counselors' career anxiety are proposed, and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novice counselor, intolerance of uncertainty, social comparison tendency, novice counselors' difficulty, career anxiety